예술과 인간이 만나는 아지트를 꿈꾼다

'따뜻한 모임' 3층 규모 예술공간 메이홀 오픈

8월1일부터 한희원 '노래는 강물되어…' 개관전

May Hall

'엉뚱하고 신기한 작은 공간.'

25일 광주시 동구 남동 인쇄 골목에 자리잡은 건물 3층에 들어섰다. 탁트인 유리창 너머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누군가 오랫동안 써온듯한 낡은 책상, 작은 쪽유리창을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래스, 한켠에 놓여진 기타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작은 바까지.

오는 8월 1일 공식 개관을 앞둔 예술 공간 '메이홀(May Hall)'에는 무언가 색다른 분위기가 가득했다.

'예술과 인간, 오늘 이곳…'을 내건 '메이홀'은 '따뜻한 모임'(이하 따모) 회원 15명이 십시일반 비용을 대 마련한 공간이다. 낡고 허름했던 공간에 직접 온기를 불어넣고, 정성으로 공간을 꾸몄다. 예술가, 기업인,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이들로 10여년 간 인연을 맺어온 '따모' 회원들은 오래 전부터 '예술 아지트'를 꿈꿔왔다. 메이홀 대표는 박석인(첨단 미르 치과원장)씨가, 관장은 임의진 목사, '얼굴마담'은 화가 한희원씨가 맡았다.

놀이·예술 그리고 배움

'메이홀'이라는 이름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돼 있다. 열두달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봄날이자, 광주를 상징하는 이름이자, 전세계 노동자들의 축제인 '메이데이'를 기억케하는 이름이다. '메이홀'은 '놀이'와 '예술', '배움의 즐거움', '영적 충만함'이 가득한 축제를 꿈꾸는 공간이다.

'메이홀'은 3개 층으로 구성돼 있다. '아지트'라는 이름이 붙은 3층은 '따모' 회원들과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쉼터다. 향기로운 커피와 와인이 있고, 월드 뮤직이 항상 흐르는 공간이다. 작가들의 예술작품과 책, 음반도 구입할 수 있다.

4층은 화가들이 전시를 하고, 음악인들이 공연을 하는 공간이다. 큐레이터를 맡은 '따모' 회원 주홍씨가 다양한 장르의 미술인들을 위한 전시회를 기획하고, 역시 '따모'와 인연을 맺고 있는 곽우영씨를 중심으로 '걸리버 여행기'라는 포크 공연이 열린다.

오월교회

5층은 다양한 강좌가 이뤄지는 옥탑방 교실이다. 이곳에서는 김해성 수채화 교실, 리일천 사진 교실, 주홍 재미있는 현대미술, 고근호 팝아트 이야기, 곽우영 기타교실, 서일권 시민정치교실, 한경돈 아이폰 아이패드 강좌, 임의진 월드뮤직, 인디언 수니 세계 민요 등 '따모' 회원들의 강좌가 열리고 , 커피교실, 와인파티, 영화감상회, 게릴라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트홀'은 5·18 민중항쟁 기념교회인 '5월 교회'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오광남·민영진·김규항·오충닝·김순현씨 등으로 짜여진 강사들과 함께 '성서연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문화재단 등 관이 주도하는 문화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생적인 문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죽어가는 도시를 점거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창조했던 사례들에서 보듯, 예술가들이 뭉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나면, 예술을 좋아하는 일반인들도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추구하는 '예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걸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진 목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5월'에도 새로운 의미를 주고 싶다"며 "눈물과 분노 이런 것도 있지만, 나눔, 해방 기쁨, 쾌락과 섹시함까지 갖춘 5월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도 꾸미고 싶다"고 말했다. '

"사실, 자기 작업실을 꾸리기도 힘든 예술가들이 이런 공동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한희원)

커피·와인 그리고 이야기

'따모'가 경계하는 건 '끼리끼리 문화'다. 행여나 아는 사람 몇몇이 누리고 마는 곳으로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 외부로 완전히 열려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물회원(매달 1만원), 거름 회원(5만원), 햇살 회원(10만원) 등 공간을 함께 만들고 지켜갈 이들도 모집하고 있다.

한편 개관 축하전으로는 한희원씨가 신작을 소개하는 '노래는 강물되어 머뭇없이 흐르고'가 8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기존의 작품과는 확 달라진 최근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개관 시간 평일 오후 1시~8시, 토·일요일 오전 11시~오후6시. www.may-hall.co.kr 문의 010-6791-80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8월1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예술공간 '아지트'에 화가 한희원, 목사 임의진, 교사 박순주씨〈사진 왼쪽부터〉 등 '따뜻한 모임' 회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비엔날레 참여작가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흩어졌던 작품조각들 회수해 다시 작품으로

시민들 즐겁게 동참해줬으면…

25일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없어 숨이 턱턱 막히는 광주비엔날레 제 2 전시실에서 만난 안규철(57)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3호(27.3㎝×19㎝)짜리 캔버스 200개를 전시실 벽에 차곡차곡 붙여 나가고 있었다. 가로로 20개, 세로로 10개씩 따닥따닥 붙여지면서 만들어진 600호짜리 캔버스는 파도가 거센 바다의 모습을 담았다. 제작 전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됐다.

미국 작가의 사진을 안 교수와 제자들이 200개의 캔버스에 나눠 그린 시간만 한 달 넘게 걸렸다. 이 캔버스를 전시실로 가져와 붙이는 작업도 꼬박 하루가 걸렸다. 작업 중 무더위와 과로로 쓰러진 스탭도 있었다.

안 교수는 이렇게 붙여놓은 캔버스를 내일 다시 뜯어낸다. 그리고 하나씩 A4 크기의 봉투에 집어넣고 광주 전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보낼 계획이다.

물론, 보낼 때 작품의 일부라는 편지를 동봉하는 한편, 일간신문에는 '분실 공고'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내 회수할 생각이다. 회수된 것은 전시관 벽면에 그대로 붙이고, 회수되지 않은 자리는 비워둔다. 작품에 낙서를 하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벽에 걸린다.

아울러 세라믹으로 만든 별 모양 조각상도 깨트려 시민들의 우편함에 넣어둔 뒤 되돌아오는 파편을 붙여 원래 모양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하게 된다.

국내 개념미술의 대표 작가라 할 수 있는 안 교수가 구상하는 작품 내용이다. 작품을 받은 시민들이 모두 돌려주는 경우와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작품인 줄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돌려주지 않는 등 세 가지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

안 교수는 "어떠한 경우든, 광주라는 도시와 시민들 사이에 남아있는 게 된다"고 했다. 언뜻 5·18 광주항쟁과 당시 '실종자'들에 대한 기억을 언뜻 떠올리게 한다.

안 교수는 "처음 참가하는 광주비엔날레인데, 역사·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했다.

"1980년 5월 광주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죠. 다만, 직설적으로 상기시키는 방식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작품의 오브제가 실종되고 회수돼 복원하는 과정 등을 비롯해 상당 부분에서 광주의 이야기를 반영했습니다"

안 교수는 그러나 "작품을 80년 광주 민중항쟁으로만 한정해서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누군가에게 언젠가 전해지길 바라며 병 속에 편지를 넣어 던지는 낭만적 기대감, 일상의 경계선 너머 또다른 세계로의 그리움 등도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광주시민들이 즐겁게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광부, 亞문화중심도시 법정종합계획 수정

광주문화도시협, 오늘 '대응전략·실천과제 모색' 포럼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26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법정종합계획 수정에 따른 지역의 대응 전략과 실천과제 모색'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교수와 임영일 광주시 문화수도정책관이 발제자로 나서는 한편,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박선정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홍인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존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도시의 비전과 정체성, 방향성이 미비하고 특별법과 종합계획간 연계성 문제도 명확하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광주시의 예비 용역에서 수정·보완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연구 용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조성사업의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